



정부는 '25년 중소기업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역대 최대 증액(+1.7조원) 지원 중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3.26. 이데일리는 「기재부, 中企 일·가정 양립 지원 중단했다」 제하의 기사(지면 A1면)에서
 - 지난해 시범 도입한 워라벨 행복산단 사업이 ‘저출생 반전대책’에도 담겼음에도 불구하고,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올해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워라벨 행복산단 사업이 저출생 대책에 담겼음에도 예산문제로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- ① 정부는 ‘25년 예산편성시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 일·가정 양립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.7조원 확대*한 바 있습니다.

* 일·가정 양립: ('24) 2.7조원 → ('25) 4.4조원, +1.7조원

- 특히,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(150→250만원), 사업주와 동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인상(육휴·단축근무, 80→120만원)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신규 지원(월20만원)하는 한편,
-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* 폐지, 단기 육아휴직(연1회, 2주) 신설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

* 육아휴직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 지급하는 제도

② 위라벨 행복산단은 '24년 고용부 자체 정책연구*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으로,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.

* '위라벨 행복산단 모델개발' 연구용역(고용부 자체연구비 3억, 노동연), '24.12월말 완료

- 따라서 진행 중인 위라벨 행복산단 사업이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무산된 것이 아니며, 전국 산업단지 확대 여부는 연구를 토대로 확산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.
- 또한 기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도 전국 산업단지 확대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,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·가정 양립은 일·생활 균형 인식개선 사업(8억원) 등을 통해 별도로 '25년에 지원 중입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·근로자가 일·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혜림 (044-215-7230)
		담당자	사무관	권영현 (044-215-7233)
	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	책임자	과 장	장중서 (044-202-7962)
		담당자	주무관	김봉영 (044-202-7608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